

《靈樞·本藏篇》에 나타난 毛髮과 三焦·膀胱과의 關係에 관한 考察

강한주* · 조홍윤**

* · ** : 대한의료기공학회

大韓醫療氣功學會

I. 緒論

毛髮은 손바닥, 발바닥, 입술, 젖꼭지, 음부 등의 粘膜을 제외한 몸 전체에 나 있고 그 발생장소에 따라 길이나 모양이 다 다르다. 《內經》에도 이 모발에 대한 언급이 《靈樞·本藏篇》등 여러 편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

《素問》과 《靈樞》를 포괄한 《黃帝內經》은 내용이 매우 풍부하여, 기본이론으로부터 질병설명, 診斷, 治療, 養生, 針灸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기재하고 있고 특히 기본이론부분은 과거 의학이론의 總結일 뿐만 아니라, 이후 한의학 이론이 宋元 이후에 발전된 점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內經》의 범주를 넘지 못하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양의학의 임상면에서 《內經》은 아직도 대단한

의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¹⁾한의학을 연구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중요서적이다.

毛髮은 인체의 臟腑, 經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素問·五藏生成論》에 “肺之合皮也,其營毛也.氣主心也,....腎之合骨也,氣營髮也,其主脾也.”라 하여 肺는 皮毛와, 腎은 骨 및 髮과 관련이 있으며 그 주는 脾가 담당한다고 하여 臟腑와의 관계에 있어서 肺, 脾, 腎과 관련이 있음을 말하였다. 또한 《靈樞·陰陽二十五人篇》에서는 인체를 순행하는 각 경락의 氣血多少는 각각 순행하는 부위의 毛髮의 盛衰를 결정함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手·足 三陽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²⁾. 또 《靈樞·本藏篇》에 “肺合大腸,

1) 홍원식, 윤창열 : (중보)중국의학사, 일중사, 2002.3, 서울, pp.82-83

2) 홍석훈 : 毛髮탈락의 병인 및 치료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Vol 9

大腸者, 皮其應... 腎合三焦膀胱, 三焦膀胱者, 腠理毫毛其應.”라고 하여 毛髮을 三焦膀胱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毛髮이 이상이 생길 경우나 脫落이 되면 經絡의 문제인지 氣血의 문제인지 臟腑의 문제인지 구체적인 毛髮의 病因을 찾기가 쉽지 않고 또 毛髮을 診斷의 外候로써 사용하기도 쉽지 않다. 때문에 현재 毛髮의 병변은 한·양방에서 난치로 분류되어 특별한 치료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³⁾⁴⁾ 이는 毛髮의 生理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靈樞·本藏篇》에 나타난 毛髮과 三焦·膀胱과의 관계에 관한 考察을 통해 毛髮의 病理, 診斷, 治療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한편, 《靈樞》의 人體의 津液代謝의 生理觀點을 毛髮이라는 작은 부분에서 바라봄을 통해 《靈樞》의 生理觀을 좀더 이해하고자 연구하게 되었다.

II. 本論

1. 毛髮에 대한 개괄

1) 毛髮의 종류

毛髮은 손바닥, 발바닥, 입술, 젖꼭

No1, 1996, p.43

3) 홍석훈 : 上揭書.

4) 이유신 : 임상피부과학, 여문각, 1987.2.8, 서울, pp.228-233

지, 음부 등의 점막을 제외한 몸 전체에 나있는데 그 발생장소에 따라 길이나 모양이 다 다르다.⁵⁾ 毛髮은 형태에 따라 크게 成毛와 軟毛로 나뉘우고 成毛는 다시 長毛와 短毛로 나뉜다. 長毛는 頭髮과 鬚髻이 해당하고 短毛는 눈썹, 속눈썹, 콧털 등이 있다. 軟毛는 얼굴이나 신체에 나 있는 솜털 같은 體毛가 해당한다.⁶⁾

<毛髮의 종류>

成毛- ㄱ 長毛- 두발, 수염

 ㄴ 短毛- 눈썹, 속눈썹, 콧털

軟毛- 체모

2) 毛髮의 구조

毛髮은 피부 표면에 나와 있는 부분인 毛幹(hair shaft)과 피부 내부에 있는 부분인 毛根(hair root)으로 나뉘며, 모근의 아래쪽에 둥근 모양을 毛球(hair bulb)라고 한다. 모구의 중심부에는 구상에 가까운 우묵한 부분이 있으며 그 하부에는 毛髮의 영양을 관장하는 혈관이나 신경이 분포되어 있다. 이 부위를 毛乳頭(dermal hair papilla)라고 한다.

毛髮의 단면은 毛小皮(cuticle), 毛皮質(cortex), 모수질(medulla)로 나누어진다. 모소피는 모피질을 보호하고 있으며 비늘 모양의 각질세포로 되어 있는 부분이며, 모피질은 毛髮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毛髮의 85-90%를

5) 고재숙, 하병조의 : 피부과학, 수문사 2000.2.21, 서울.

6) 고재숙, 하병조의 : 上揭書.

차지하며 멜라닌 색소와 공기를 포함하여 毛髮을 지탱하고, 모수질은 둥근 모양의 세포로서 기포를 갖고 있으며 毛髮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두꺼운 毛髮일수록 모수질이 있는 것이 많고 연모에는 모수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중 모피질에는 각화된방추형의 세포가 매우 밀착되어 있으며 毛髮의 길이 방향으로 평행하여 길게 세로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⁷⁾

毛髮의 성분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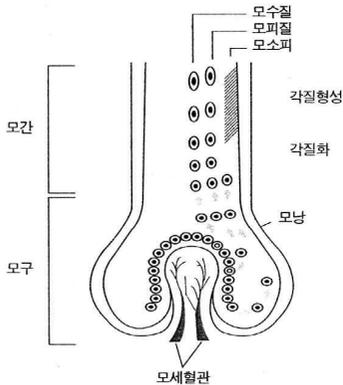


그림 1. 모발의 단면

로 이루어져 있으며 케라틴은 아미노산이 고분자 형태로 결합된 것이다. 毛髮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주변의 습도변화에 따라 수분함유량이 달라진다.

3) 毛髮의 성장 주기

毛髮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히 빠지고 다시 생겨서 자라나며 어느 때가 되면 또 빠져 버리는 것과 같이 毛

髮은 주기적으로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반복한다. 인간의 毛髮의 생장은 주기적이지만 각 모낭은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동물과 같이 일시에 탈모하지는 않는다.

毛髮은 성장기에만 만들어지며 毛髮의 성장기는 3-6년 정도이다. 성장기의 모유두는 크고 모기질 세포가 활발하게 성장하여 毛髮이 길어지며 모구가 피하조직에 달하기까지 길어진다. 성장기가 끝나며 모낭은 더 이상 毛髮을 만들지 않고 퇴화를 하게 되며 세포분열이 정지되고 모낭은 쪼그러든다. 이와 같이 일단 성장이 정지되면 毛髮은 퇴행기를 거치게 된다. 퇴행기는 약 2-3주간 지속되며 그 후 곧 모기질 세포에서 세포 분열이 감소하다가 결국 정지되어 휴지기에 들어간다. 휴지기에 들어간 毛髮은 고착력이 약해지고 멜라닌 색소도 결핍된다. 또한 새로운 毛髮이 모낭에서 생겨 휴지기에 있는 毛髮을 밖으로 밀어낸다. 이 단계는 3-4개월 지속되고 이 이후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촉진제가 모근을 재 성장시켜 성장기로 접어들게 한다. 즉 성장기의 毛髮은 퇴행기를 거쳐 휴지기에 들어갔다가 결국 탈락하게 되는데 저절로 빠져나가는 毛髮의 숫자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하루에 80-100개로 알려져 있다. 성인의 毛髮은 성장기의 것이 전체의 약 88%를 차지하고 약 11%가 휴지기 毛髮이다. 毛髮의 성장이 느려지는 퇴행기의 毛髮은 약 1%를 차지한다. 빠지는 毛髮은 모두 휴지기의 毛髮이

7) 고계숙, 하병조의 : 上揭書.

다.

2. 《內經》에 나오는 毛髮에 관련된 용어

《靈樞》에서 ‘毛髮’이라는 용어가 全文을 통틀어 9번 보이는데 《靈樞·經脈篇》“皮膚堅而毛髮長” 《靈樞·寒熱病篇》“肌寒熱者，肌痛，毛髮焦” “皮膚緩則腠理開，開則邪從毛髮入，入則抵深，深則毛髮立，毛髮立則漸然，故皮膚痛”이라고 하여 軟毛와 成毛를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靈樞》에는 또한 ‘毫毛’라는 용어도 13번 나오는데 《靈樞·刺節眞邪篇》에“腠理開 毫毛搖” 《靈樞·五音五味篇》에“血氣盛則充膚熱肉，血獨盛則澹滲皮膚，生毫毛”라고 하여 毛髮과 毫毛는 일반 체표에 난 털을 의미하는 용어로 서로 혼용해서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毛髮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이름지어졌는데 《東醫寶鑑·毛髮門》에 “在頭曰髮 髮者拔也. 在目曰眉 眉者媚也. 頤下曰鬚 鬚者秀也. 在頰曰髻 口上曰髭 髭者資也”라고 하였고 길이에 따라 王冰은 毫와 腠理에 대해 “毛之長者曰毫，皮之文理曰腠理，然二者 皆皮之可見也⁸⁾”라고 하였다.

膚는 皮의 外側의 薄層을, 分肉은 그 內層인 皮下脂肪層을 腠理는 皮膚間의 紋理로 皮膚組織間의 間隙에 해당한다. 玄府는 汗毛孔으로 氣門, 鬼門으로도 불리며 汗液을 배출하며 肺의 呼

吸機能을 보조한다.⁹⁾ 하지만 《靈樞》에는 따로 ‘玄府’나 ‘氣門’이라고 하여 汗毛孔을 칭하는 용어대신, 腠理가 열고 닫힘으로 汗이 배출된다고 하여 腠理가 汗毛孔의 역할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素問》에서도 《靈樞》처럼 腠理의 開閉를 통해 汗을 배출하는 毛孔의 개념을 포괄하는 의미가 대부분이지만 ‘氣門’이나 ‘玄府’라는 毛孔을 뜻하는 용어가 몇몇 편에서 볼 수 있다.

玄府	客於玄府，行於皮裏，傳爲附腫，本之於腎，名曰風水。所謂玄府者，汗空也	水熱穴論篇
	上焦不通利，則皮膚緻密，腠理閉塞，玄府不通，衛氣不得泄越，故外熱	調經論篇
	血溢流注，精液乃少，目赤心熱，甚則瞽悶懊懣，善暴死。刻終大溫，汗濡玄府，其乃發也，其氣四。	六元正紀大論篇
氣門	故陽氣者，一日而主外，平旦人氣生，日中而陽氣隆，日西而陽氣已虛，氣門乃閉。	生氣通天論篇
	五之氣，陽乃去，寒乃來，雨乃降，氣門乃閉，剛木早凋	六元正紀大論篇

표 1. 《素問》에서 玄府 氣門이 수록된 篇과 文句

《素問》에서는 毛髮이라는 용어가

8) 《素問刺要論》 王冰註

9) 이영중 : 脫髮에 관한 韓醫學 文獻의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제 16권 제 1호, 1995.

篇》에 “黃帝曰 願聞六府之應。 岐伯答曰 肺合大腸，大腸者，皮其應。 心合小腸，小腸者，脈其應。 肝合膽，膽者，筋其應。 脾合胃，胃者，肉其應。 腎合三焦膀胱，三焦膀胱者，腠理毫毛其應。” 이라고 하여 六腑와 皮脈筋肉腠理毫毛의 대응관계를 서술하였는데, 肺-大腸-皮, 心-小腸-脈, 肝-膽-筋, 脾-胃-肉, 腎-三焦膀胱-腠理毫毛로 대응된다. 皮膚는 金에 배속되고 腠理毫毛는 水에 배속되는 對等的 對應임을 알 수 있다.

《靈樞經脈篇》에는 “ 黃帝曰 人始生，先成精，精成而腦髓生，骨爲幹，脈爲營，筋爲剛，肉爲牆，皮膚堅而毛髮長” 이라고 서술하였다. 발생학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신체를 살펴본 것으로 精이 먼저 생기고 나면 腦髓, 骨, 脈, 筋, 肉, 皮膚처럼 毛髮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인다. 여기서도 毛髮은 骨脈筋肉皮와 나란히 배열되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靈樞終始》에도 “春氣在毛¹³⁾, 夏氣在皮膚, 秋氣在分肉, 冬氣在筋骨”라고 해서 계절에 따른 氣의 위치를 설명하는데 毛-皮膚-分肉-筋骨로 배열되어 있다.

腠理의 역할은 《靈樞》 여러편에 보이는 것 처럼 皮膚가 緻密하면 단히고 皮膚가 늘어지면 열리는 皮膚의 상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毛孔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素問》에서는 “病有在毫毛腠理者,
13) 校釋作 毫毛.

“西方生燥，燥生金，金生辛，辛生肺，肺生皮毛，皮毛生腎，肺主鼻，其在天爲燥，在地爲金，在體爲皮毛，在藏爲肺”	陰陽應象大論篇
“熱傷皮毛... 辛傷皮毛，苦勝辛。”	陰陽應象大論篇
“脉氣流經，經氣歸於肺，肺朝百脉，輸精於皮毛。毛脉合精，行氣於府。”	經脉別論篇
“皮毛者，肺之合也，皮毛先受邪氣，其寒飲食入胃，從肺脉上至於肺則肺寒”	效論篇
“肺主身之皮毛...腎主身之骨髓。故肺熱葉焦，則皮毛虛弱，急薄著則生痿癭也”	痿論篇
“其眚西，其藏肺，其病內舍膺脇肩背，外在皮毛。”	氣交變大論篇

표 8. 《素問》의 肺와 相應으로서의 皮毛 관련 篇과 文句

有在皮膚者，有在肌肉者，有在脉者，有在筋者，有在骨者，有在髓者。” 《靈樞》에서 보이는 것처럼 毫毛腠理와 皮膚를 따로 보고 치료도 《素問·刺要論篇》에서 “刺毫毛腠理，無傷皮”라고 해서 皮膚와 毛髮을 각기 명확히 구분해서 본 곳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래와 같이 皮毛라고 해서 皮膚와 毛髮을 같이 취급하여 五行 즉, 金에 배속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

런 관점은 皮膚을 주로 하고 毛髮을 從으로 하는 從屬關係로, 《靈樞》의 관점과 上衝하는 면이 있다. 《素問》에서는 《素問·痿論篇》 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肺-皮毛, 心-血脉, 肝-筋膜, 脾-肌肉, 腎-骨髓. 이라는 구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肺에 이상이 있으면 皮毛 역시 허약해진다고 하였다.

《素問》에서는 頭髮을 일반적인 체모와는 구별되게 腎氣를 반영하는 外候로써 많이 보이고 있다.

<p>“女子七歲, 腎氣盛, 齒更髮長; 四七... 髮長極, 身體盛壯; 五七, 陽明脉衰... 髮始墮; 六七, 三陽脉衰於上... 髮始白; 丈夫八歲, 腎氣實, 髮長齒更; 五八, 腎氣衰, 髮墮齒槁; 六八, 陽氣衰竭於上, 面焦, 髮鬢頽白; 八八, 則齒髮去”</p>	上古天真論篇
<p>“腎者... 其華在髮”</p>	六節藏象論篇
<p>“腎之合骨也, 其榮髮也”</p>	五藏生成篇
<p>“多食苦, 則皮槁而毛拔 多食甘, 則骨痛而髮落, 此五味之所傷也.”</p>	六節藏象論

표 3. 《素問》의 '頭髮'에 대한 관련된 篇과 文句

《內經》은 수록된 방대한 내용으로 보거나, 重複 또는 相反되는 구절이 많은 것으로 보거나, 또는 인용된 地

名·官名·書名 등으로 미루어 보아 한사람이 저술한 것이나 한시대의 著作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여러 세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즉 周 秦 漢 代에 걸쳐서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橋·俞·醫和·醫緩·扁鵲·樓讓·陽慶·倉公 등의 醫家들이 口傳된 黃帝의 사상을 追尋하여 서술하고, 반복 시험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성이 있다.¹⁴⁾

이렇듯 《素問》내에서도 다른 견해가 보이고 《靈樞》내에서도 다른 견해가 보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일관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살펴보면, 《靈樞》와 《素問》에서 보이는 毛髮의 관점이 약간 차이를 볼 수 있다.

《素問》은 毛髮을 頭髮과 體毛로 분류하여 頭髮은 腎氣에 상응하고 體毛는 皮膚와 함께 肺氣에 상응한다고 보고 있다. 《靈樞》는 頭髮을 따로 腎氣에 대응시킨 것이 아니라, 體毛를 포함한 毛髮 전체를 腎-膀胱-三焦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素問》에서는 五行分類配屬으로 도식화하는 경향이 강한 편들을 여러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배속시키는 와중에 皮膚와 毫毛腠理를 같이 묶어서 金-肺에 皮毛로써 함께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素問·刺要論篇》에서는 《靈樞》처럼 피부와 모발의 개념을 명확히 분리한 곳도 있어서 다양한 관점이 보인다. 《靈樞》에서

14) 홍원식, 윤창열 : 前揭書.

는 皮膚라는 개념과 ‘毫毛腠理’라는 개념을 명확히 분리해서 썼으며 《素問》에서 보다 일관된 견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素問》의 《水熱穴論篇》《調經論篇》《六元正紀大論篇》《生氣通天論篇》에서는 玄府, 氣門이라고 땀구멍을 뜻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靈樞》에서는 腠理가 開閉한다고 하여 따로 毛孔을 뜻하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 《素問》에서도 《靈樞》에서처럼 腠理가 열리면 땀이 난다고 표현하는 篇도 있고, 위에 나열한 篇名처럼 玄府, 氣門를 사용하여 腠理를 대신하는 篇이 서로 혼재하고 있다. ‘玄府’, ‘氣門’이라는 용어가 《靈樞》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素問》에서 보인다는 것은 《素問》이 후대에 저작되거나 바뀐 것일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內經》에 대한 저작시기의 견해가 다양한데 현존하는 《素問》의 내용은 한 시기의 작품이 아니며 후대 사람의 저작이 혼입되었다는 설이 타당성이 있다. 《靈樞》가 저작된 시대에 대해서도 분분한 견해가 있는데 清代의 杭世俊은 “王冰이 거짓기록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陸心源은 《儀顧堂題跋》에서 “靈樞는 정밀하고 말이 심오하여 《經筋篇》 등은 성인이 아니면 지을 수 없는 것이고 王冰注와 서로 비교하여 보면 정밀함과 조잡함, 깊음과 얕음의 차이가 서로 현격하게 다르므로 단연코 王冰이 위탁한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중국의학사략》에서는 “《素問》에는 經言이라는 말로

써 많이 인용하고 있으며 종종 《靈樞》에서 그에 해당하는 원문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¹⁵⁾

《素問》은 여러 번에 걸쳐 교정되었는데 嘉祐 2년(1057년)에 王冰이 改編한 《素問》 二十四卷을 林億·高保衡·孫奇 등이 교정하였고, 孫兆가 다시 正誤하여 계 6천여개소를 고쳤으므로 이를 “新校正”이라 한다. 한편 《靈樞》는 《素問》에 비하여 평이하게 편찬되었으므로, 주석가들 사이에 별다른 쟁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靈樞》는 宋代의 史崧이 改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두 二十四卷으로 되어 있다.¹⁶⁾

이렇게 교정이 많이 가해지며 후대의 사상과 개념과 단어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한편 본래의 내용에서 왜곡될 소지가 큰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靈樞》는 거칠지만 본래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內經》 본래의 모습을 《靈樞》를 통해 보는 것이 더 타당성 있다고 생각된다. 《素問》에 많은 교정이 가해지는 와중에 牽強附會로 五行에 짜맞추려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고, 당시에 쓰고 있는 새로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글에는 주로 《靈樞》를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15) 최승훈 : 내경병리학, 통나무, 1993 pp.46-52

16) 홍원식, 윤창열 : 前掲書, p.92

4. 毛髮과 경락과의 관계

1) 任衝脈과 毛髮의 관계

《靈樞·五音五味篇》을 살펴보면 “衝脈任脈, 皆起於胞中, 上循背裏, 爲經絡之海. 其浮而外者, 循腹右上行, 會於咽喉, 別而絡脣口.”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衝任脈의 순행 경로를 설명하고 있고 “血氣盛則充膚熱肉, 血獨盛則澹滲皮膚, 生毫毛.” 이곳은 毛髮이 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고 있으며 “今婦人之生, 有餘於氣, 不足於血, 以其數脫血也. (衝任之脈, 不榮口脣, 故鬚不生焉.)” 이곳은 여성이 턱수염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傷其衝脈, 血寫不復, 皮膚內結,(脣口不榮, 故鬚不生.)” 이 문구는 환관이 턱수염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任衝不盛, 宗筋不成, 有氣無血,(脣口不榮, 故鬚不生.)” 이곳은 선천적(남성)으로 턱수염이 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살펴보면 毛髮은 경락의 순행 경로위에서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毛髮이 나기 위한 요건이 어느 정도의 熱과 어느 정도의 濕氣가 필요함을 판단할 수 있고, 熱과 濕氣가 조건에 맞으려면 해당 經絡의 血과 氣가 왕성해야하고 게다가 血이 더욱 盛하여 皮膚에 어느 정도의 濕度를 줄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12경맥과 毛髮의 관계

《靈樞·陰陽二十五人篇》에 經絡과 毛髮의 상태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眉,

鬚, 鬢, 腋下毛, 體幹前面部, 下肢部の 毛髮을 다룬다.

(1) 眉(눈썹)

“足太陽之上, 血氣盛則美眉, 眉有毫毛, 血多氣少則惡眉”

“手少陽之上, 血氣盛則眉美以長...”

눈썹을 지나는 經絡이 膀胱, 三焦經이고 눈썹을 통해서 膀胱, 三焦經의 氣血 상태를 알 수 있다.

(2) 髭(콧수염)

“手陽明之上, 血氣盛則髭¹⁷⁾美. 血少氣多則髭惡, 血氣皆少則無髭.”

콧수염을 지나는 經絡이 手陽明大腸經이고 콧수염을 통해서 手陽明大腸經의 氣血 상태를 알 수 있다.

(3) 鬚(턱수염)

“手太陽之上, 血氣盛則口多鬚”

턱수염을 지나는 經絡이 手太陽小腸經이고 턱수염을 통해서 手太陽小腸經의 氣血 상태를 알 수 있다.

(4) 髻(구렛나루)

“足陽明之上, 血氣盛則髻¹⁸⁾美長, 血少氣多則髻短, 故氣少血多則髻少, 血氣皆少則無髻. 兩吻¹⁹⁾多畫“

“足少陽之上, 氣血盛則通髻美長, 血多氣少則通髻美短, 血少氣多則少髻“

구렛나루를 지나는 經絡이 足陽明胃·足少陽膽經이고 구렛나루를 통해서 足陽明胃·足少陽膽經의 氣血 상태를 알

17) 자: 코밑 수염. 콧수염. 모양이 예쁘다.

18) 염: 구렛나루. 턱수염. 髻俗字.

19) 문: 입술. 입가. 면하다. 없애다.

수 있다.

(5) 腋下部 毛髮

“手陽明之下，血氣盛則腋下毛美”

腋下部를 지나는 經絡이 手陽明大腸經이고 腋下毛를 통해서 手陽明大腸經의 氣血 상태를 알 수 있다.

(6) 體幹部 前面的 毛髮

“足陽明之下，血氣盛則下毛美長至胸，血多氣少則下毛美短至臍，... 血氣皆少則無毛...”

여기서 下毛라 함은 생식기의 毛髮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생식기에서 위로 올라오는 毛髮의 상태로 胃經의 氣血상태를 알 수 있다.

(7) 下肢部の 毛髮

“足少陽之下，血氣盛則脛毛美長 ...
血多氣少則脛毛美短 ...
血少氣多則脛毛少 ...
血氣皆少則無毛”

脛骨부위를 지나는 經絡이 足少陽膽經이고 脛骨의 毛髮을 통해 膽經의 氣血 상태를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인체의 전체를 흐르는 經絡의 표면에 해당하는 체표면 毛髮의 상태를 통해 그 해당 經絡의 氣血 상태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毛髮의 상태를 통해 經絡의 氣血 상태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문구가 《靈樞陰陽二十五人篇》에 보인다. “其肥而澤者，血氣有餘。肥而不澤者，氣有餘，血不足。瘦而無澤者，氣血俱不足。” 毛髮의 굵기와 윤택 정도를 통해 經絡의

氣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手足三陰經의 표현은 없고 三陽經만이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5. 毛髮과 三焦膀胱의 관계

1) 일반적 장부의 관계

일반적으로 毛髮과 장부의 관계는 주로 肺 脾 腎 3장과 밀접하다고 한다.²⁰⁾

肺와 毛髮의 관계는 肺主皮毛로 皮毛에 氣血을 行하게 하여 毛髮에 영양을 공급을 하게 한다. “肺는 그 華가 毛에 있다²¹⁾” 또 肺氣가 부족하면 宣發衛氣와 輸送營血의 作用이 減弱하여 毛髮의 光澤이 없어지고 乾燥枯焦해지며 심하면 脫落에 까지 이른다.

脾와 毛髮의 관계는 脾主運化와 밀접하다. 水穀의 精氣가 運化하여 毛髮의 血氣를 濡養하고 毛髮의 腎中精氣를 充養한다. 그러므로 脾가 水穀의 精氣를 運化하는 작용이 왕성하면 氣, 血, 精이 充足하여 毛髮로 하여금 충분한 營養과 정상생활이 이루어지지만, 반대로 脾가 水穀의 精氣를 運化하는 기능이 감퇴되어 氣, 血, 精의 생성이 부족하면 毛髮의 영양이 결핍하여 마르거나 탈락하게 된다.

腎과 毛髮의 관계는 腎中精氣가 毛髮의 생리작용에 미치는 것으로 표현되나, 腎中精氣가 첫 번째는 血液을 化

20) 李暎鐘：脫髮에 관한 韓醫學 文獻的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제16권 제 1호, 1995

21) 《素問·五臟生成篇》

生하여 毛髮을 영양하고, 두 번째는 元氣를 化生하여 毛髮의 生長을 촉진하며, 세 번째는 督脈 任脈 衝脈의 經氣作用을 거쳐 毛髮에 영양을 공급한다고 한다. “腎者 其華在髮”이라고 하였다.

2) 膀胱-三焦와 毛髮의 관계

《靈樞·五癰津液別篇》에 보면 “岐伯曰 水穀皆入于口... 津液各走其道, 故三焦出氣, 以溫肌肉, 充皮膚, 爲其津, 其流而不行者爲液. 天暑衣厚則腠理開, 故汗出, 寒留于分肉之間, 聚沫則爲痛. 天寒則腠理閉, 氣濕不行, 水下留于膀胱, 則爲溺與氣.” 이라고 하여 水液代謝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날씨가 더워 체온이 올라가면 腠理가 열려서 땀이 배출되고 날씨가 추워서 체온이 내려가면 腠理가 닫혀 水液이 膀胱으로 가서 小便으로 배출되고 三焦는 肌肉을 따뜻하게 하고 皮膚를 충실히 한다고 한다.

三焦, 膀胱은 같이 취급되는 곳이 많은데 《靈樞·本藏篇》에 “腎應骨, 密理厚皮者, 三焦膀胱厚. 粗理薄皮者, 三焦膀胱薄. 疏腠理者, 三焦膀胱緩. 皮急而無毫毛者, 三焦膀胱急. 毫毛美而粗者, 三焦膀胱直. 稀毫毛者, 三焦膀胱結也.” 이라고 하여 三焦膀胱은 腎에 합하는 臟腑이고 毫毛로써 外候를 삼는다고 하였다. 《素問·靈蘭秘典論篇》에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 이라고 하여 三焦와 膀胱은 수액 대사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고 또한 《靈樞·本輸篇》 “膀胱者, 津液之府也.... 三焦者, 中瀆²²⁾之府也, 水道出焉, 屬膀胱, 是孤之府也.” 라고 하여 三焦는 膀胱에 屬한다고 水液을 다루는 作用的인 측면에서 같이 다루고 있다. 또 營衛와 氣血이 생성 운행되는데는 三焦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中焦는 水穀으로 부터 營衛와 氣血의 생성에 관여하고, 上焦와 下焦는 營衛氣血의 활동에 관여한다.²³⁾

인체의 體液에 대해 살펴보면 《靈樞·決氣篇》에 “余聞人有精氣津液血脈, 余意以爲一氣耳,上焦開發, 宣五穀味, 熏膚充身澤毛, 若霧露之溉, 是謂氣.腠理發泄, 汗出溱²⁴⁾溱, 是謂津.....中焦受氣, 取汁變化而赤, 是謂血.” 이라고 하여 精과 氣와 津과 液과 血과 脈은 이름만 다를뿐 하나의 氣라고 하고 있다. 汗과 氣血과의 관계는 《靈樞·刺節真邪篇》에 더욱 자세히 나와 있다. “人氣在外, 皮膚緩, 腠理開, 血氣減, 汗大泄, 皮掉澤.人氣在中, 皮膚緻, 腠理閉, 汗不出, 血氣強, 肉堅濇.” 더운 곳에 있으면 人氣가 밖에 있게 되어 腠理가 열리고 血氣가 줄고 땀이 많이 나게 되고 추운 때에는 皮膚가 緻密해지고 腠理가 닫혀 血氣가 강하다고 하였다.

《靈樞·歲露論》에 “人氣血虛, 其衛氣

22) 독: 개천. 도랑. 더럽히다. 통하다. 업신여기다. 욕되다. 거둬. 바꾸다.

23) 嚴東明, 營衛에 대한 고찰: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1996, 서울

24) 진: 물이름. 많다. 성한 모양. 퍼다. 이르다(至).

去, 形獨居, 肌肉減, 皮膚縱, 腠理開, 毛髮殘”라고 해서 氣血이 허해지면 결국 피부가 힘없이 늘어지게 된다고 한다. 피부가 이완되는 것은 결국 毛孔이 열려 汗이 배출되는 상황인데 체온이 올라갈 때나 氣血이 허해질 경우에 毛孔이 열린다고 하고 있다. 毛孔이 열려 汗이 배출되는 것은 毛髮의 영양을 주는 氣血이 소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毛髮에 좋지 않다. 汗은 결국 다른 이름의 血과 氣이다. 이것을 《靈樞·營衛生會篇》에 아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奪血者無汗, 奪汗者無血” 血이 없으면 汗도 없고 汗이 고갈된 자는 血도 또한 없다고 하였다.

汗을 分泌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靈樞·決氣篇》에 보면 “上焦開發, 宣五穀味, 熏膚充身澤毛 ”라고 해서 上焦에서 五穀味를 宣하여 熏膚充身澤毛한다고 하였다. 三焦 중에서도 上焦가 腠理를 열어 汗을 分泌하는 역할을 함을 《靈樞·癰疽篇》과 《靈樞·五味論》을 통해 알 수 있다. 《靈樞·癰疽篇》에 “黃帝曰 余聞腸胃受穀, 上焦出氣, 以溫分肉, 而養骨節, 通腠理.” 腸胃에 곡물이 들어오면 上焦에서 氣가 나와 分肉을 따뜻하게 하고 關節을 滋養하며 腠理를 疏通시킨다고 하였다. 또 《靈樞·五味論》에 “少俞曰 辛入于胃, 其氣走于上焦, 上焦者, 受氣而營諸陽者也..... 辛與氣俱行, 故辛入而與汗俱出.” 매운 맛이 胃에 들어가면 上焦로 가는데 上焦는 諸陽을 다스려 결국 매운 맛이 들어가면 汗으로 배출된다고 하였다.

上焦에서는 諸陽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어서 腠理를 疏通시켜 汗의 배출을 유도하고 피부 온도를 유지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런 기능은 衛氣의 작용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25)

《靈樞·歲露論》에 “人氣血虛, 其衛氣去, 形獨居, 肌肉減, 皮膚縱, 腠理開, 毛髮殘”라고 해서 氣血이 虛해지면 衛氣가 사라지고 形만 홀로 있게 되어 皮膚가 탄력없고 腠理가 열리고 毛髮이 傷하게 된다고 하여 衛氣가 주로 肌肉 皮膚 腠理 毛髮에 관여함을 알 수 있다.

또 《靈樞·營衛生會篇》에 “此外傷于風, 內開腠理, 毛蒸理泄, 衛氣走之, 固不得循其道, 此氣慄悍滑疾, 見開而出, 故不得從其道, 故命曰漏泄.”라고 해서 衛氣는 外邪(風邪)의 침입으로 腠理가 열리면 慄悍滑疾한 성질로 달려가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하지 못할 경우 ‘漏泄’이 된다고 하였다. 이篇에서 보이는 것 역시 衛氣는 腠理의 열림을 제어하여 津液의 손실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靈樞·本藏篇》에서도 “衛氣和則分肉解利, 皮膚調柔, 腠理緻密矣”라고 해서 衛氣가 조화로워야 피부가 제 역할을 해서 腠理가 치밀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靈樞·邪客篇》에는 “地有泉脈, 人有衛氣. 地有草莩²⁶⁾, 人有毫毛 ”라고 하여 비유를 통해 설명하였는데

25) 이광규, 衛氣來源說에 관한 文獻의 고찰, 병리학회지, P.85-86, 1987.3

26) 명: 명첩. 책력풀. 약이름. 맥: 두루미 냉이.

衛氣는 땅의 개울로 毫毛는 풀로써 물이 있어야 풀이 자라는 것처럼 衛氣의 공급을 받아야 毫毛가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上焦의 ‘通腠理’ 기능으로 주리가 열렸을 때나 衛氣의 缺損時 腠理가 이완되어 汗이 分泌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三焦, 膀胱은 인체의 氣血津液의 代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上焦부분은 衛氣의 작용과도 유사하다. 氣血津液은 毛髮의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氣血津液에 관련된 臟腑는 모두 毛髮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으나 三焦나 膀胱을 津液을 貯藏하고 水道를 내고하여 인체의 水液代謝에 가장 근본적인 臟腑이다.

三焦·膀胱의 作用으로 肺脾腎과 毛髮과의 연관관계를 有機的으로 설명가능한데 腎은 三焦, 膀胱과 습하는 장부로 膀胱, 三焦를 主하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肺는 衛氣와 三焦중에 上焦의 작용과 밀접하다. 또 肺는 皮膚를 관장한다. 皮膚는 腠理가 있어 汗을 배출하여 氣血의 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고 또한 毛髮은 皮膚에 지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肺-皮膚 기능은 毛髮과 밀접하다.

脾는 氣血津液을 만드는 後天之本이기 때문에 氣血의 근본적인 生産을 돕는 장부로 毛髮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6. 毛髮과 환경요소와의 관계

季節과의 관계는 《靈樞·終始》에 “春氣在毛²⁷⁾, 夏氣在皮膚, 秋氣在分肉, 冬氣在筋骨”라고 해서 春氣는 陽氣가 上升하므로 인체에서도 가장 表部에 있는 毛髮로 氣가 上升함을 표현하였다. 邪氣侵入時 《靈樞·百病始生》“虛邪之中人也, 始於皮膚, 皮膚緩則腠理開, 開則邪從毛髮入, 入則抵深, 深則毛髮立” 邪氣가 들어올 때 皮膚가 이완되면 腠理가 열려 邪氣가 안으로 毛髮을 통해 들어와 깊이 들어가면 毛髮이 선다고 하였다. 즉 毛髮이 몸이 허할 때 사기가 들어오는 통로가 됨을 알 수 있다. 氣溫과의 관계는 《靈樞·刺節眞邪篇》에 “熱則滋雨而在上, 根芟²⁸⁾少汁, 人氣在外, 皮膚緩, 腠理開, 血氣減, 汗大泄, 皮淖澤. 寒則地凍水冰, 人氣在中, 皮膚緻, 腠理閉, 汗不出, 血氣強, 肉堅濇” 더운 곳에 있으면 人氣가 밖에 있게 되어 腠理가 열리고 血氣가 줄고 땀이 많이 나게 되고 추운 때에는 皮膚가 緻密해지고 腠理가 닫혀 血氣가 강하다고 하였다. 血氣가 줄면 毛髮의 영양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또 달과의 관계도 표시하였는데 《靈樞·歲露論》에 “人與天地相參也, 與日月相應也. 故月滿則海水西盛, 人氣血積, 肌肉充, 皮膚緻, 毛髮堅, 腠理郤, 煙垢著, 當是之時, 雖遇賊風, 其入淺不深. 至其月郭空, 則海水東盛, 人氣血虛, 其衛

27) 校釋作 毫毛.

28) 해: 풀뿌리.

氣去，形獨居，肌肉減，皮膚縱，腠理開，毛髮殘”라고 하여서 달의 지고 참에 따라서 毛髮의 상태가 변한다고 하였다. 年齡과의 관계는 《素問·上古天真論》에서는 頭髮로 나이에 따른 腎氣盛衰를 표현했다. 여자 28세 남자 32세에 도달하면 毛髮은 生長의 極에 달하며, 그 이후부터는 腎氣가 減退하기 시작하여 白髮이 되고 頭髮脫落이 된다고 하였다. 《靈樞·天年》“四十歲... 腠理始疏，榮華頹落，髮頗斑白”라고 해서 나이가 차면 백발이 된다고 하였다. 食餌에 따른 毛髮상태는 《素問·五臟生成篇》“多食苦則皮槁而毛拔....多食甘，則骨痛而髮落”라고 해서, 苦味가 太過하면 肺를 傷하여 皮槁毛拔하고 甘味가 太過하면 腎을 傷하여 骨痛髮落하므로써 毛髮에 病變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Ⅲ. 考察

毛髮은 인체에 짐막, 손바닥, 발바닥을 제외한 인체 표면 전체에 나타난다. 《內經》에서는 진단으로 사용가능한 毛髮은 可視的으로 쉽게 볼 수 있고 그것이 ‘美하다, 美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가능한, 즉 潤澤과 굵기를 판단할 수 있는 毛髮을 취급한다. 《素問》과 《靈樞》는 毛髮에 대해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 《素問》에서는 《陰陽應象大論篇》, 《經脈別論篇》, 《欬論篇》, 《痿論篇》, 《氣交變大論篇》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肺-皮毛, 腎-骨의 구도이지만 《靈樞》에서 《本臧篇》, 《經脈篇》, 《終始篇》에서 보이는 것처럼 皮와 毛를 구분해서 보고 있으며, 肺-皮膚, 腎-毫毛腠理의 대응 구도를 견지하고 있다. 《素問》은 후대에 6000여 부위²⁹⁾의 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五行分類配屬으로 도식화하는 경향이 강한 편들이 여러군데서 보이는데 그런 와중에 皮膚와 毛髮을 함께 묶어 皮毛로써 肺에 配屬되고, 腎은 五體중의 하나인 骨에 配屬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素問》에서는 皮膚와 毛髮을 같이 취급하는 대신 頭髮은 따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頭髮은 腎氣를 반영하는 外候로써 《上古天真論》, 《六節臧象論》, 《五臟生成篇》에서 보인다.

《素問》은 皮膚의 毛孔을 뜻하는 ‘玄府’, ‘氣門’이라는 용어를 《水熱穴論篇》, 《調經論篇》, 《六元正紀大論篇》, 《生氣通天論篇》에서 볼 수 있는데 《靈樞》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毛髮에 대해 《素問》과 《靈樞》가 용어와 장부배속에서 다른 면을 보이는 것은 같은 《內經》에서도 《靈樞》는 鍼灸書로 취급되었고 一貫的인 견지를 갖고 있어서 주석가들의 교정이 많지 않았던 반면에 《素問》은 1057년 6천여개소를 교정한 ‘新校正’을 비롯하여 여러 주석가들에 의해 내용이 많이 가해지고 개편되어서 후대의 醫家의 저작이 混入되어서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9) 홍원식, 윤창열 : 前掲書 p.92

《靈樞》에 대해 陸心源은 《儀顧堂題跋》에서 “《靈樞》는 정밀하고 말이 심오하여 《經筋篇》 등은 聖人이 아니면 지을 수 없는 것이고 王冰注와 서로 비교하여 보면 정밀함과 조잡함, 깊음과 얕음의 차이가 서로 현격하게 다름으로 단연코 王冰이 委託한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中國醫學史略》에서는 “素問에는 經言이라는 말로써 많이 인용하고 있으며 종종 《靈樞》에서 그에 해당하는 원문을 찾아볼 수 있다.” 라고 하여 《靈樞》가 《素問》보다는 《內經》 당시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氣血津液代謝의 내용이 풍부하여 《靈樞》를 주로 인용하였다.

毛髮과 經絡과의 관계를 살피면 《靈樞·五音五味篇》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毛髮은 經絡의 循行徑路위에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毛髮이 나기 위한 조건이 적당한 熱과 濕氣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 熱과 濕氣가 적당하려면 該當經絡의 血과 氣가 왕성해야 하고 그중에 血이 더욱 盛하여 어느 정도의 濕度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靈樞·陰陽二十五人篇》을 보면 經絡의 표면의 毛髮 상태를 통해 그 經絡의 氣血狀態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같은 篇에서 “其肥而澤者, 血氣有餘. 肥而不澤者, 氣有餘, 血不足. 瘦而無澤者, 氣血俱不足.” 이라고 하여 眉, 鬚, 鬚, 髻, 腋下毛, 體幹前面部毛, 下肢毛의 굵기와 윤택을 통해 三陽經의 氣血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毛髮과 臟腑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肺,

脾, 腎 3臟과 밀접하다고 판단하고, 탈모나 모발병변의 문제를 이 장부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³⁰⁾ 인체에서 氣血津液이 만들어지는 과정³¹⁾에서 肺脾腎 三臟이 주로 관여하므로, 경락의 기혈 상태를 반영하는 毛髮과 氣血生成의 측면에서 타당성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靈樞·本藏篇》 “黃帝曰 願聞六府之應. 歧伯答曰 肺合大腸, 大腸者, 皮其應. 心合小腸, 小腸者, 脈其應. 肝合膽, 膽者, 筋其應. 脾合胃, 胃者, 肉其應. 腎合三焦膀胱, 三焦膀胱者, 腠理毫毛其應.”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六腑와 五體와의 대응에서 三焦, 膀胱은 腎에 합하는 臟腑이고 毛髮과 毛孔으로써 外候를 삼는다고 하였다. 같은 편에 “腎應骨, 密理厚皮者, 三焦膀胱厚. 粗理薄皮者, 三焦膀胱薄. 疏腠理者, 三焦膀胱緩. 皮急而無毫毛者, 三焦膀胱急. 毫毛美而粗者, 三焦膀胱直. 稀毫毛者, 三焦膀胱結也.”라고 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三焦·膀胱은 津液代謝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津液을 貯藏하고 津液을 배설, 運轉하면서 有機적으로 作用한다.

30) 홍석훈 : 前揭書

31) 《素問·經脈別論篇》“食氣入胃, 濁氣歸心, 淫精於脉. 脉氣流經, 經氣歸於肺, 肺朝百脉, 輸精於皮毛. 毛脉合精, 行氣於府. 府精神明, 留於四藏, 氣歸於權衡. 權衡以平, 氣口成寸, 以決死生. 飲入於胃, 遊溢精氣, 上輸於脾. 脾氣散精, 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胱.”

《靈樞·刺節眞邪篇》에 “汗不出，血氣強。”이라고 하였으며，《靈樞·歲露論》에 “人氣血虛，... 腠理開，毛髮殘”이라고 해서 氣血이 허해지면 毛孔이 열려 汗이 배출되는 상황으로 가며，《靈樞·營衛生會篇》에 “奪血者無汗，奪汗者無血”라고 해서 血이 없으면 汗도 없고 汗이 고갈된 자는 血도 또한 없다고 하였다. 즉, 人體에서 汗은 津液으로 다른 이름의 血과 氣이다. 또 《靈樞·決氣篇》에 “精氣津液血脈，余意以爲一氣耳”이라고 하여 津液과 氣血은 상호 교류하는 결국 하나의 氣라고 하였다. 皮膚가 성글고 腠理가 제어하지 못하면 汗이 세어나가 血氣가 소모되어 결국 毛髮의 濡養의 缺乏을 초래한다.

汗의 배출은 三焦, 膀胱의 津液代謝의 일부로 특히 上焦의 역할이 큼을 《靈樞·癰疽篇》과 《靈樞·五味論》을 통해 보았다. 또 中焦는 氣血의 生成에, 上下焦는 氣血의 運行에 관여하여 經絡의 氣血상태에 직접적인 반영인 毛髮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衛氣도 또한 毛髮의 濡養에 중요한데 衛氣는 皮膚의 彈力과 腠理의 開閉에 관여하여 津液의 손실을 제어하는데, 衛氣 역시 三焦中 上焦의 作用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³²⁾

三焦膀胱의 作用으로 肺脾腎과 毛髮과의 연관관계를 유기적으로 설명가능한데 腎은 三焦, 膀胱과 습하는 장부로 膀胱, 三焦를 主하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肺는 衛氣와 三焦중

에 上焦의 작용과 밀접하다. 또 肺는 皮膚를 관장한다. 皮膚는 腠理가 있어 汗을 배출하여 氣血의 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고 또한 毛髮은 皮膚에 지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肺-皮膚 기능은 毛髮과 밀접하다. 脾는 氣血津液을 만드는 後天之本이기 때문에 氣血의 근본적인 生産을 돕는 장부로 毛髮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毛髮은 또 季節, 邪氣侵入, 氣溫, 月의 滿朔, 年齡, 食餌, 性別같은 외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환경에 따라 氣血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氣血의 공급이 중요한 毛髮 또한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IV. 結論

이상 《靈樞·本藏篇》에 나타난 毛髮과 三焦膀胱과의 관계에 관한 考察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膀胱은 津液을 貯藏하며, 中焦는 氣血의 生成에, 上下焦는 氣血의 運行에 관여하여 氣血의 상태를 조절하여서 건강한 毛髮 상태를 유지한다.
2. 肺脾腎과 毛髮과의 관계는 三焦膀胱의 津液代謝作用의 측면으로 유기적으로 설명가능하다. 腎은 三焦, 膀胱의 機能을 주관하고, 肺는 汗腺分泌의 上焦의 作用과 밀접하고, 脾는 氣血津液을 生成하는 中焦의 機能과 밀접하여 毛髮의 生理에 영향을 미친다.

32) 이광규 : 前揭書

3. 毛髮은 經絡의 循行徑路위에 나며, 毛髮이 나기 위한 조건은 적당한 熱과 濕氣가 필요하다. 熱과 濕氣가 적당하려면 該當經絡의 血과 氣가 왕성해야하고 그중에 血이 더욱 盛하여 어느 정도의 濕度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 毛髮의 潤澤은 해당부위의 經絡의 血 상태를 알 수 있고 毛髮의 直徑는 해당부위의 經絡의 氣의 상태를 알 수 있다.

5. 毛髮은 氣血의 濡養을 받는데 氣血과 汗은 상호전환되는 하나의 體液으로, 汗이 세어나가면 결국 氣血이 손상되어 毛髮의 건강상태가 저하된다.

6. 《素問》에서는 皮膚와 毛髮을 함께 취급하여 皮毛라 칭하고 肺에 상응하고, 毛髮中 頭髮을 따로 분리해서 腎氣에 상응함을 볼 수 있으며, 《靈樞》에서는 皮膚와 毛髮을 분리해서 보며 皮膚는 肺, 頭髮을 포함한 毛髮은 腎氣에 相應함을 볼 수 있다.

5. 최승훈 :내경병리학, 통나무, 1993, 서울
6. 李暎鐘 : 脫髮에 관한 韓醫學 文獻의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제16권 제 1호, 1995
7. 嚴東明 : 營衛에 대한 고찰: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1996, 서울
8. 許浚 : 東醫寶鑑, 南山堂 1987, 서울
9. 문장원 外 : 黃帝內經을 통해 본 皮膚에 관한 내용의 考察, 대한외관과학회지 제14권 2호, 2001.12
10. 이광규 : 衛氣來源說에 관한 文獻的 考察, 병리학회지, 1987.3
11. 홍석훈 : 毛髮탈락의 병인 및 치료법에 대한 文獻的 考察, 대한외관과학회지 9권 1호, 1996
12. 채병윤 : 한방외과, 高文社, 1975.7.5, 서울
13. 이유신 : 임상피부과학, 여문각, 1987.2.8, 서울

V. 參考文獻

1. 홍원식 :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 1985, 서울
2. 홍원식 : 精校黃帝內經靈樞, 동양의학연구원, 1985, 서울
3. 고재숙 하병조 外 : 피부과학, 수문사 2000.2.21, 서울
4. 홍원식, 윤창열 : (증보)중국의학사, 일증사, 2002.3, 서울